

기억의 경관에 대한 미적 경험

손은신* · 배정환**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I. 머리말

본 연구는 현대의 많은 건축물과 장소가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이용하는 조정 설계의 한 흐름에 대한 고찰이다. 독일의 뒤스부르크 노르트 파크, 뉴욕의 프레시킬스와 9.11 메모리얼, 국내의 선유도공원이나 서서울호수공원 등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여러 공원은 단지 장소와 공간의 기능적 효율성이나 거대한 설계 경향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을 이끄는 동인의 하나로 장소의 과거 모습이 가진 '기억'에 주목한다.

장소를 기억의 매체로 본 몇 가지 선행 연구가 있다. 특히 근대 이후 피에르 노라의 '기억의 장소' 논의와 에드워드 케이시의 '장소 기억' 개념, 그리고 알라이다 아스만의 '기억의 공간' 등의 논의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기억이라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은 집단적이고 제도적인 틀 내에서 장소 및 공간이라는 매체를 통해 현실화되고 환기되며, 장소는 인간의 기억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Nora, 1984; Casey, 1987; Assmann, 2009).

그러나 과거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부지들에서 일어나는 설계적 접근이 단지 기억의 매체로서 이를 환기시키는 장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기억의 장소에서 방문자에게 더욱 직접적인 경험을 유발하는 것은 이들 장소가 가진 기억의 미적 특성이다. 즉, 오늘날 장소와 경관 설계에서 나타나는 기억할 만한 것, 낡은 것, 오래된 모습을 선호하는 경향의 중요한 한 원인이 미적 경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과거의 기억을 간직한 여러 장소와 경관에서 미적 경험이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숭고, 노스탤지어, 멜랑콜리 등 기억의 장소에서의 미적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통해 이용자의 기억이 장소와 경관을 통해 작동하며 감상자의 미적 경험을 구축하는 방식을 탐구하고자 한다.

II. 장소와 경관의 매체적 특성

기억의 매체는 망각을 통한 기억의 자연스러운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직접적인 기억의 매체는 몸이다(Bergson, 1921; Halbwachs, 1950). 몸이 대표적인 내부적 기억 매체라면, 장소는 몸과 대비되는 외부적 기억 매체이며(Assmann, 2009: 24-26), 장소의 보완물인 경관은 가장 비물질

적인 기억의 장소다(Nora, 1984). 기억의 장소에서의 미적 경험은 기억의 매체인 장소와 경관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

기억의 매체로서 장소와 경관이 가지는 매체적 특성이 이들 장소에서의 미적 경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장소와 경관에서 미적 경험과 감상을 위한 중요한 대전제는 방문이다. 방문은 직접적인 공간 방문과 사진 등을 통한 간접적 방문을 모두 포함한다. 방문은 곧 미적 경험을 하는 대상과 이용자 사이에 충분한 물리적 거리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방문을 통한 미적 대상과의 물리적 거리가 중요한 이유는 내부적 기억 매체인 몸에 기억이 저장될 때의 문제 때문인데, 가장 큰 문제는 단연 트라우마 기억이다. 오늘날 기억의 장소와 경관이 담고 있는 기억들은 홀로코스트 사건이나 9.11 테러, 쓰나미와 지진 등 20세기의 거대하고 폭력적인 사건들의 기억이다. 그러나 방문자는 자율적으로 매체와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의 기억이 트라우마 기억에서 유발된다 하더라도 이를 극도의 병적 상태에 이르지 않고 미적인 것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III. 기억의 장소와 경관에서의 미적 경험

1. 시간성의 발현: 숭고, 노스탤지어, 멜랑콜리

시간성은 물성과 비교하여 공간이 가진 시간과 기억의 쉼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물성이 감각적인 외관이라면 시간성은 공간에서 감상자가 상상을 통해 지각할 수 있는 시간의 쉼이다.

기억은 시간성을 환기시키는 매개체인데, 이 때 기억은 공간이 물성을 통해 보여주는 공간이 가진 기억과 방문자가 공간에 대해 알고 있는 기억 또는 지식을 의미한다. 미적 경험을 하는 방문자에게 환기되는 시간성은 물성에 감상자의 기억이 더해져 구축된다. 예컨대 픽처레스크(picturesque) 폐허의 연상(association) 방식처럼 방문자들은 장소를 경험하면서 장소가 가진 시간의 쉼을 상상력의 힘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Saito, 2007). 시간성의 경험은 방문자들이 상상할 수 있지만 단지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이자 인간의 통제를 넘어선 것으로, 본 연구는 이를 시간의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이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시간의 비가역성은 기억의 장소와 경관 안에서 숭고, 노스탤지어, 멜랑콜리 등의 미적 개념과 연결된다. 숭고(sublime)는 거대한 크기, 경이로움 등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시간적·공간적

크기를 통한 압도적 경험을 만들어내는 힘으로(배정환, 2006), 방문자들은 기억을 간직한 공간이 보여주며 스스로 상상해낸 역사적 시간과의 차이에 압도당한다. 과거에 대한 향수를 나타내는 노스탤지어(nostalgia)는 과거의 기억을 공간에서 다시 마주하며 추억과 그리움을 느끼지만 과거의 시간을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성을 통해 발현된다(Boym, 2001). 멜랑콜리(melancholy)는 슬픔이 극복되지 않은 채 상실의 상태로 남은 미적 감정으로(김동규, 2011) 방문자들은 이미 발생한 사건의 기억을 떠올리지만 사건을 통해 무엇인가 상실되던 그 시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불가항력적인 힘을 통해 멜랑콜리를 경험한다. 또한 슬픈 기억은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기되는데, 기억의 지속적 환기를 통해 계속되는 끝나지 않는 애도 작업 또한 멜랑콜리와 연결된다.

2. 기억의 장소와 경관에서 미적 경험의 구축 사례

이 절에서는 몇몇 사례를 통해 앞에서 설명한 기억의 장소와 경관에서의 미적 경험의 구축 양상을 해명하고자 한다. 먼저 뉴욕 맨해튼의 9.11 메모리얼은 2001년 9.11 테러 당시의 기억을 반추하는 공원이다. 거대한 두 개의 인공 폭포가 떨어지는 이 공원의 설계 개념은 '부재의 반추'로 당시 테러를 기억하는 많은 방문자들은 환기되는 기억을 통해 깊은 애도의 감정을 느낀다. 슬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원이 드러내는 기억의 의지는 당시의 사건을 회상하고 통제할 수 없는 과거를 통제하고자 하는 멜랑콜리적 갈망에서 온다.

고베 항 지진 메모리얼 파크(神戸港震災メモリアルパーク)는 거대한 자연 재해로 인한 갑작스런 희생을 기억하는 공원이다. 시는 1995년 일어난 진도 7.2의 고베 대 지진을 기억하고자 당시 지진이 일어났던 항만의 일부를 그대로 보존하여 공원화했다. 여러 지진의 경험 기억을 가진 일본인들은 이 공원에서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지진을 떠올린다. 또한 방문자들은 각자의 마음을 묵직하게 하는 자연 재해의 힘과, 이미 시간이 지나 이제 다른 공간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된 지진의 모습과의 대비를 통한 과거와의 시간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한편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들은 재해로 인한 무력감보다는 도저히 자연과 공존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산업 부지를 잠식해나가는 자연의 거대한 힘을 보여준다. 2002년 완공된 선유도공원은 부서진 콘크리트 사이로 드러나는 철골, 콘크리트 기둥을 감싸며 오르는 덩굴 식물을 통해 자연의 숭고한 힘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거대한 숭고의 경험은, 이제는 산업 잔여물로만 남아 방문자들의 상상 속에서만 완전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자연이 잠식해나감에 변화해갈 미래의 모습들 사이의 거대한 차이에서 온다.

한편 골목길은 노스탤지어를 만들어낸다(김홍중, 2008). 서울의 서촌은 청와대 주변 개발 제한 및 고도 제한으로 인해 오늘날

마치 이삼십 년 전의 골목길 풍경을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이다. 상점이 늘어난 대로 뒤편의 골목길과 통인시장 등의 재래시장은 노스탤지어를 강화한다. 방문자들은 편리해진 현대 사회에서 상실되어 회복될 수 없는 이전의 정겨움에 대한 향수를 경험하며, 공간이 만들어내는 기억의 편린을 통해 노스탤지어를 만난다.

골목길과는 반대로 20세기의 폭력적인 기억 중 하나인 홀로코스트의 기억을 담고 있는 베를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Holocaust Memorial)은 트라우마 기억을 환기시키는 장소다. 이 메모리얼에서 파도치는 듯 수없이 놓여 있는 회색 콘크리트 블록들은 유대인들의 이름 없는 무덤이자 관으로, 공간을 통해 환기되는 기억은 이를 애도하며 반성하고자 하는 가해자 독일인의 태도를 드러낸다. 이미 종식된 전쟁과 되돌릴 수 없는 유대인의 전후 상처는 여전히 멜랑콜리를 만들어내는 열린 상처다.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은 이 기억을 방문자들에게 환기시키며 끊임 없는 슬픔과 애도 작업을 반복하게 한다.

IV. 맺음말

본 연구는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장소와 경관이 만들어지고 있는 원인이 미적 경험에 있다고 보고, 기억의 매체인 장소와 경관을 통해 방문자들이 이를 미적으로 경험하는 방식에 대해 탐구했다. 장소의 기억과 방문자의 기억을 함께 고려하며 장소가 만들어낼 시간성과 미적 경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단지 낡은 외관만을 모사하여 설계된 공간을 넘어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미적 공간을 만들어내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동규(2011) 프로이트의 멜랑콜리론. 철학탐구 28: 259-287.
2. 김홍중(2008) 골목길 풍경과 노스탤지어. 경제와 사회 77: 139-284.
3. 배정환(2006) 숭고, 조경미학과 설계의 새로운 접점. 조정송 외. LAnd: 조경·미학·디자인. 도서출판 조경. pp.142-153.
4. Assmann, A.(2009) Erinnerungsraume. 변학수, 채연숙 역(2011) 기억의 공간. 서울: 그린비.
5. Bergson, H.(1921) Matière et Mémoire. 박종원 역(2005) 물질과 기억. 서울: 아카넷.
6. Boym, S.(2001) The Future of Nostalgia. New York: Basic Books.
7. Casey, E. S.(1987) Remembering: A Phenomenological Stud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8. Halbwachs, M.(1950) La Mémoire Collective. trans. J. D. Francis and Y. D. Vida(1980) The Collective Memory. New York: Harper&Row.
9. Nora, P.(1984) Les Lieux de Memoire. 김인중 역(2010) 기억의 장소. 파주: 나남
10. Saito, Y.(2007) Everyday Aesthe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